

‘무사증 입국’ 시행 했지만… 국제선 운항, 성수기 절반수준

중대본, 8개국 무사증 입국 재개
3월에 여객회복 예상보다 부진

“中 제외 동남아·미주·유럽 노선
방역이슈 없다면 내년상반기 회복”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무사증 입국’이 이뤄지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국제선 회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연초 예상했던 만큼의 여객 회복에는 수요가 못 미치고, 고환율과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항공사들의 재무 손실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는 일본·타이완·마카오·솔로몬 군도·키리바시·마이크로네시아·사모아·통가 등 8개 국가나 지역에 대한 국내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 상태다. 항공업계는 무사증 재개와 항공 수요 회복세에 맞춰 국제선 증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총 112개국에 됐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동계기간에 해당하는 올해 10월 30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국제선과 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본, 대만 등 8개국에 대한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1일부터 재개됐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은 여행객들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일정표를 인가했다.

특히 국제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항규모 58% 수준으로 겨울철 성수기를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다. 74개 항공사는 총 162개 노선, 주 2711회 규모의 여객 운항을 인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동북아 노선 회복이 중국의 입국 제한과 방역 조치 때문에 더딘하지만 동남아와 미주·유럽 노선은 방역이슈가 없다는 가정하에 내년 상반기쯤 회복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여행업계도 국내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제도 전면 폐지 효과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올 4분기부터 본격적인 여행 수요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항공 정상화’의 길은 올해 안에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국외로 나간 여객은 각각 올해 8월 195만487명, 9월 180만2548명이었다. 추석과 10월 휴일이 만든 ‘황금 연휴’를 지났음에도 예상만큼 여객이 회복되지 않은 것이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이용할 여객 수를 ▲9월 321만명 ▲10월 359만명 ▲11월 392만명 ▲12월 458만명으로 예측했지만 달마다 200만명도 넘지 못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인천공항공사가 예측한 올해 국제선 여객 2439만명도 이루기 버거울 전망이다. 코로나19 전이었던 2019년에는 7058만명이 국제선을 이용한 바 있다. LCC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팬데믹 수준으로 확산됐을 시절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아진 편이고 노선 회복과 여객 증가도 지난해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자본잠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미 LCC인 에어부산은 지난달 148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행해 3분기 완전 자본잠식을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자본잠식계 빠졌으며, 진에어도 자본잠식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62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1차 470억원, 2차 150억원 등 총 620억원 규모의 무기명사채를 발행한다고 지난 31일 공시했다.

대형항공사(FSC)인 아시아나도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의 여과

로 3분기 ‘완전자본잠식’의 위기에 직면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상반기까지 영구 전환사채(CB) 이자와 회사채 상환 명목으로 38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는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수익을 내기 위한 갖은 노력에 나서고 있다. 멈췄던 정기 노선 재개는 물론 중·장거리 기체 도입을 통한 새로운 노선을 취항하는 데 열을 올리는 한편, 항공화물을 조금씩 늘려가며 수익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전용 화물기를 가지고 항공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제주항공은 올해 6월 인천~하노이를 시작으로 7월 일본, 8월 중국 등으로 화물기 노선을 확대했으며, 화물 운송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6월 242톤(t)의 항공화물량을 소화하고 7월 920t, 8월 952t, 9월 1060t을 기록하고 있다”며 “항공사가 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다각화를 이뤄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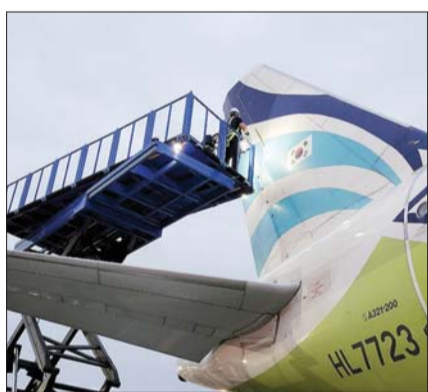
에어부산, 10년간 항공기 사고·준사고 ‘0’

안병석 대표 “안전 최우선 원칙 결과
압도적으로 뛰어난 운항능력 증명”

에어부산이 국적사 중 유일하게 최근 10년간 단 한 건의 항공기 사고는 물론 준사고도 일으키지 않으며 완벽한 안전 운항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가장 안전한 항공사’ 표창을 3차례(2011년·2016년·2021년) 수상한 바 있다.

2일 에어부산은 2012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항공편수가 10만 편 이상의 국적사 중 유일하게 항공기 사고·준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병석 대표는 “최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0년간의 무사고 실적은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안전 최우선’ 경영 원



에어부산 정비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기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에어부산

칙을 철저히 지킨 결과”라며 “압도적으로 뛰어난 에어부산의 안전운항능력을 증명한 것이다”고 전했다.

‘항공기 사고’는 ▲승객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등을 말하며 ‘항공

기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 외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뜻한다.

에어부산 측은 “창립 때부터 ‘안전’을 핵심 가치로 두고 승객들이 안심하고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 역량 강화에 매진해 왔다”며 “안병석 대표 취임 이후에는 안전 체계 확립과 안전 관련 제반 역량의 지속 강화를 통해 ‘가장 안전한 항공사’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어부산은 이러한 경영 방침에 따라 안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안전협의회’를 연 1~2회에서 분기별 실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달 말에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비상상태에 즉각 대응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항공기 사고 수습 종합훈련’과 ‘항공기 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플래그쉽 서울역 캠프에서 이용 가능한 ‘위블 비즈’ 서비스.

현대차, 전기차 공유서비스 시범운영

공유오피스 스타트업 대상 ‘위블비즈’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공유 서비스 활성화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은 공유 오피스 입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기차 공유 서비스 ‘위블비즈’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위블비즈 시범운영 대상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 ‘플래그쉽 서울역 캠프’에 입주한 50여 개 스타트업

이다. 위블 비즈는 기업이 전기차를 구독해 평일 업무시간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개인이 출퇴근 혹은 주말 레저용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공유 서비스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플래그쉽 서울역 캠프에 2대의 니로 EV 전기차를 투입했다. 위블 비즈 이용 기업 임직원들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손쉽게 전기차를 예약할 수 있다. 건물 내 위치한 전용 주차 구역에서 차량을 픽업하거나 반납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효성 창립 56주년… “ESG경영·친환경 기술혁신 집중해야”

조현준 회장, 계사판에 기념사 공유

효성도 조용한 창립기념일을 맞이한다. 2일 효성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사진)은 3일 창립기념일을 기념해 사내 계사판에 창립기념사를 공유했다.

당초 효성은 창립기념일에는 휴무로 전날인 2일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해왔지만, 올해에는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임을 고려해 행사 대신 창립기념사로 대체했다.

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태원 참



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황망한 사고로 전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며 참담한 심정과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서 조 회장은 사업장에서도 사고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할터가 최우선이라며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 새로운 경영 트렌드가 되고 있는 ESG 경영과 친환경 기술혁신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고객사들을 만나 이런 변화를 절감했다며, VOC를 통해 이 같은 고객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달라지는 니즈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위기, 56년 역사 속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준비된 자’만이 뒤에 올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격려했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고효율 공조솔루션 기술 소개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참가

LG전자가 고효율 공조 솔루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 LG전자는 2일부터 고양 컨텍스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전시회로 매년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신제품과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LG전자는 270㎡ 규모의 전시관에 주거, 업무, 상업 및 산업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맞춤형 공조 솔루션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전시관은 LG전자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아 푸른 정원을 콘셉트로 꾸몄다. /김재용 기자